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고 은 주
(서강대학교)

김 진 옥*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부모가 지닌 계층적인 특성이 영유아 자녀돌봄시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을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적인 돌봄으로 구분하고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집중돌봄형, 시간투자형, 전략적 돌봄형, 외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모델은 영유아 자녀의 연령별로 0~2세와 3~5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계층적 변수는 소득과 부모의 교육 수준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연령집단별로 계층적 변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0~2세 자녀가구에서 소득은 상호작용시간 비율이 높은 집중돌봄형과 전략적 돌봄형 그리고 외주형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은 기본적인 돌봄시간이 많은 시간투자형에 영향을 미쳤다. 3~5세 자녀가구집단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외주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층적 요인이 자녀돌봄 패턴에 차이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자녀돌봄시간, 자녀돌봄유형, 퍼지셋 이념형분석, 생활시간조사

본 논문은 2016년 7월 38회 생활시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위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김진옥, 서강대학교(sspjwk@sogang.ac.kr)

■ 투고일: 2016.10.31 ■ 수정일: 2016.12.8 ■ 게재확정일: 2016.12.12

I. 서론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슈퍼부모”에서 “스웨덴 부모”까지 다양한 자녀양육법 책들이 끊임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에서 잘 드러난다. 그 이유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상위계층에 진입하기 위하여 인지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한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아동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적어지면서 자녀돌봄에 투자하는 부모의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Sayer, 2004a; 주은선 등, 2014). 특히 고학력부모들이 자녀돌봄시간을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Bianchi et al., 2004, 2006; Bonke & Esping-A Andersen, 2011; Sayer et al., 2004b; 송유진, 2011; 주은선 등, 2014). 반면에 상당히 긴 유급노동시간과 일하는 부모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는 여전히 부모들에게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노혜진, 2014;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¹⁾. 특히, 맞벌이가족의 경우에 평균 자녀돌봄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서 짧고, 소득계층 간의 차이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돌봄 시간의 불평등을 예측할 수 있다(김진욱, 고은주, 2014)²⁾.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자녀돌봄은 세 가지 차원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가족을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이다. 부모가 지닌 소득수준과 교육수준과 같은 계층적인 특성이 직·간접적으로 자녀를 위한 시간적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자녀돌봄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증가현상과 관련된다. 아버지의 자녀 돌봄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 외에도 아버지의 돌봄개입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현상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소득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모의 계층적 특성에 따라서 불균등한 돌봄을 제공받는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다. 자녀돌봄은 가깝게는 자녀의 성장과 발

1) 2012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전체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평균비용은 208,700원으로 가구소득대비 5.4%로 2009년도(6.4%)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44.0%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어머니 소득비가 자녀돌봄 이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노혜진, 2014).

2)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에 한국은 평균적으로 자녀돌봄에 94.9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나 영국부모들보다 40~50분 정도 적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맞벌이부부의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는 42분이다(김진욱, 고은주, 2014).

달을 위한 행위지만 멀리 보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돌봄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서 영유아자녀의 현재모습은 물론이고 미래모습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녀돌봄의 불평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돌봄의 불평등한 모습을 파악함에 있어서 부모가 지닌 계층적 특성에 따라서 돌봄의 내용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자녀돌봄에는 일상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돌봄과 학습 및 놀이를 제공하는 상호작용적인 돌봄이 모두 포함된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경험이 미래에 나타날 자녀의 학습과 발달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Hart et al., 1995). 즉, 부모와 상호작용활동이 많을수록 자녀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시간이 길수록 인지 및 정서 발달을 촉진한다(Laakso et al., 1999; 이옥 등, 2002; 최혜순, 김찬숙, 2011). 따라서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적인 돌봄행동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돌봄의 내용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 돌봄행동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돌봄시간을 유형화함으로써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선행연구들이 돌봄시간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본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적 돌봄, 혹은 여가 등의 각 돌봄시간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자녀돌봄행위의 혼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Fuligni & Brooks-Gunn, 2004; Craig, 2006; Bonke & Esping-Andersen, 2009; 노혜진, 2014)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제공하는 전체적인 돌봄의 총시간과 상용작용 중심의 돌봄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돌봄의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돌봄의 유형화를 위하여 퍼지셋 이념형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이미 발견된 바와 같이 교육수준과 소득은 각각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Bianchi, Cohen, Raley & Nomaguchi, 2004; Bianchi, Robinson & Milke, 2006; Bonke, 2011; Sayer, Liana, Gauthier, Furstenberg, 2004b; 송유진, 2011;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 McLanahan, 2004, Connelly & Kimmel, 2007; Bonke & Esping-Andersen, 2009).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자녀돌봄을 증가시키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었다(노혜진, 2014). 이는 맞벌이로 인한 소득의 증가와 자녀돌봄의 감소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자녀돌봄시간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영유아자녀 가구의 돌봄시간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족 외에도 외벌이 가족까지 확대된

연구로서 전체적인 영유아 자녀가족에서 소득수준과 학력이 자녀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영유아 자녀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의 경우에 어릴수록 발달속도가 빠르고 연령에 따라 돌봄욕구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석에서도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을 0~2세와 3~5세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부모의 자녀돌봄유형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계층적 요인이 자녀돌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배경에서 자녀돌봄의 혼합적인 특성과 계층적인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다뤘다. 연구방법에서는 분석자료와 자녀돌봄의 유형화를 위한 퍼지셋 이념형분석과정, 그리고 회귀분석모형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를 설명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자녀돌봄시간유형별 기술분석결과와 각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를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자녀돌봄의 성격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적자본에 접근한다. 자녀가 돌봄제공자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적인 자극에 노출되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즉, 부모의 개입으로 자녀는 부모의 인적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가족자원의 이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Coleman et al., 1998).

구체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care giving)은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서 보살핌과 교육(놀이)으로 구분할 수 있다.(McGee & Menolascino, 1988). 이 중에 적극적인 돌봄이 일상적인 돌봄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변처리나

동행과 같은 일상적인 보살핌보다 인지행동발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에서 더 높은 상호작용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돌봄행동을 돌봄행동의 성격(목적)보다는 행동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Sayer et al., 2004a, 2004c; Bianchi et al., 2006; Bonke & Esping-Andersen, 2011, Craig, 2006; 박은정 등, 2013; 주은선 등, 2014). 즉,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행위를 하였는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예를 들면, 자녀와 함께 놀아줄 경우에는 직접돌봄이고 자녀 혼자 놀도록 지켜보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간접적인 돌봄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시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인지행동 및 사회적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직접적인 돌봄행동 안에는 ‘책 읽어주기’와 같은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신변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돌봄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적극적인 개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더 높은 질의 상호작용을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체적인 보살핌보다는 자녀의 인지사회적인 측면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돌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와 상호작용활동이 많을수록 자녀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시간이 길수록 인지 및 정서발달을 촉진한다(Laasko et al., 1999; 이옥 등, 2002;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의 성격의 차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돌봄행위를 돌봄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더라도 전체적인 돌봄의 양과 발달 및 교육중심의 돌봄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Fuligni & Brooks-Gunn, 2004; Craig, 2006; Craig, 2011; Esping-Anderson, 2009; Bonke & Esping-Andersen, 2009; 노혜진, 2014).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가 제공하는 돌봄은 발달을 촉진하는 상호작용행동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돌봄행동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돌봄의 양과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돌봄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Bianchi와 그의 동료들(2004)과 Craig(2011)이 적용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적(arrangement) 행동기준을 활용한다. 그들은 미국의 시간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주행동시간)을 상호작용이 높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돌봄시간

(primary child care)을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높은 놀이 및 학습의 특성을 지닌(책읽어 주기, 대화하기, 놀아주기, 숙제 도와주기를 포함하는) 관계적인 시간(engagement time/talk-based-care)과 그 외의 기본적인 보살핌 시간(Basic time)으로 구분하였다.

2. 자녀돌봄의 계층적 특성

어린 자녀는 부모가 제공하는 놀이와 학습을 통해서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Vygotsky는 아동의 발달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적 맥락이 태도나 신념보다 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적 맥락이란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 즉 문화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유아의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사회적 맥락은 세 가지 수준에서 고려된다. 첫째,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수준: 어느 순간에 유아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 둘째, 구조적 수준: 가정이나 학교처럼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구조, 셋째, 전반적인 문화나 사회적인 수준: 크게 보아 그 사회의 특성, 즉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언어, 수 체계 및 과학과 기술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Bodrova & Deborah, 1996).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인지과정을 형성하며, 발달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Bronfenbrenner(1986)의 생태체계모델은 Vygotsky의 사회적 맥락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이 모델은 가정학습의 환경, 양육행동 그리고 어린 아동의 사회적 기능, 언어, 학문적 결과를 설명한다. 부모의 학습 지원과 민감성 그리고 자녀의 학습과 안녕은 자녀의 특성, 태도, 행동, 양육행동들 간의 역동적인 과정이며,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양육과 어린 자녀의 학습 및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기능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86; Hartas, 2014 재인용). Vygotsky와 Bronfenbrenner의 이론과 Esping-Andersen(2009)의 입장은 맥을 같이 한다. Esping-Andersen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게 투자하는 부모의 능력차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의 이질성과 취약성은 가족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Lareau(2003)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두 가지 자녀양육스타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중산층 가족이 자녀의 출세를 목적으로 학습과 교육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모의 실천을 의미하는 ‘조율된 양육(concerted cultivation)’이다. 조율된 양육방식은 지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을 축적시

킬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다. 반면에 빈곤계층 부모들은 의식주와 같은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적인 성장을 통한 성취(accomplishment of natural growth)'를 추구한다³⁾.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Hartas(2014)는 자녀들의 성취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부모의 지원부족 이라기보다는 자원의 질과 지향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빈곤한 부모들도 중산층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준도 비슷하다. 특히 일하는 부모들은 시간적 압박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높은 교육적 열망을 갖는다. 하지만 대개 빈곤과 경제적인 위축이 부모의 자녀양육 및 지원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녀를 위한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Demo & Cox, 2000). 따라서 부모는 소득과 교육수준에 의해서 그들이 지닌 교육적 열망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전체적인 자녀돌봄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 어머니들은 1975년까지 점차적으로 일상적인 돌봄시간은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간은 늘어났으며, 아버지들의 일상적인 자녀돌봄 참여시간도 증가하였다(Sayer et al., 2004a). 그러나 소득과 자녀돌봄시간과의 관계는 일관적인 방향 및 영향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을 줄어들거나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Nock & Kingston, 1988; Stafford & Yeung, 2004, Hofferth, 2001). 반면에 비전형적인 근무시간을 갖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Connelly & Kimmel, 2007). 한국부모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자녀돌봄시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송유진, 2011; 주은선 등, 2014), 19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에 소득계층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유럽국가들(노르웨이, 영국, 독일)은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길었으나, 한국은 저소득층의 자녀돌봄시간이 고소득층의 59%에 지나지 않는다(김진욱, 고은주, 2014). 또한

3) 한국에서는 류소영(2014)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빈곤가족의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노동자계층과 빈곤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지위형 통제방식을 취하여,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 안에서 자녀에게 엄격하게 한계를 설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신(종교)에게 맡기거나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의 빈곤이 양육관, 양육기간 및 양육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중산층의 학벌중심 양육관이 아닌 힘든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에 자녀양육참여 시간이 부모 모두에서 차이 난다. 저소득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주중 양육시간이 가장 길고 아버지의 주말양육시간이 가장 짧다. 영유아의 일과시간에서 고소득층의 경우 영유아가 주양육자나 친구와 노는 시간이 가장 많고,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TV나 비디오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다(강한나, 박혜원, 2013).

부모의 교육수준도 부모가 제공하는 인지 및 비인지적 자극의 질에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는 고학력 부모들이 자신의 지식과 교육에 관한 이해를 이용하여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고학력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종사할 경우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고 고학력 어머니들의 시간은 자녀의 발달에 유익한 활동에 집중된다. 즉, 돌봄에 투자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도 교육수준에 따라서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Esping-Anderson, 2009).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학력 어머니들이 저학력어머니에 비해 자녀돌봄시간을 자녀의 발달에 맞게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고학력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자녀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에 투자한다(Kalil, Ryan, & Corey, 2012).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0-2세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에서 목욕시키기와 먹이기와 같은 기본적인 보살핌과 놀이시간의 차이를 유발하고, 학령전기인 3-5세 자녀에게는 읽기와 문제풀이와 같은 부모의 학습지도시간에 차이를 나타내며, 6-13세의 학령기 자녀에게는 관리감독(parental management) 시간에 차이를 보인다(Guryan, Hurst, & Kearny, 2008).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측정

부모의 계층적인 특성이 자녀돌봄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녀돌봄행위별 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 조사는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만 10세 이상 국민의 생활시간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 방식이며, 개인이 일기를 쓰듯이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시간일지를 작성

하므로 생활시간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생활시간조사가 지닌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자녀돌봄행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있어서 기본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적인 돌봄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2014년도 자료부터는 10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유아자녀의 경우에 발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연령별로 필요한 돌봄에 차이가 난다. 따라서 0~2세와 3~5세 자녀에게 부모가 제공하는 돌봄의 차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모의 돌봄합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구성된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가구별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돌봄패턴의 차이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영유아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를 분석에 포함하였다⁴⁾. 생활시간연구의 경우에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패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석에 요일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자율적인 시간사용이 제한되는 평일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영유아자녀 돌봄행위를 <표 1>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1.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 10세 미만 자녀돌봄행동 구분

| 구분 | 기본적 돌봄 | 상호작용적 돌봄 |
|-------|--------------------------|-------------------------|
| 돌봄 행동 |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 기타돌보기 | 아이 가르치기 책임어주기 · 놀아주기 |

4) 본 연구는 자녀의 연령 차이와 돌봄시간유형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1명으로 제한하여 분석대상가구를 선별하였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돌봄패턴과 차이가 날 수 있다.

2.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활용한 자녀돌봄시간 유형화

총 돌봄시간과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퍼지셋 이념형(fuzzy-set ideal type analysis)분석을 활용하였다. 퍼지셋 분석방법은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연구에서 유형화작업에 매우 유용한 분석방법으로서 집합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퍼지셋은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속성을 가정하며, 보통은 2개 이상의 변수를 교차시켜서 유형을 만든다. 이러한 퍼지셋 이념형분석은 유용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퍼지셋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 돌봄의 유형을 구축하고 그 기준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이다⁵⁾. 둘째, 하나의 사례가 특정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평균이나 중앙값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에 해당하는 네 가지 돌봄유형에 대한 소속점수를 1과 0사이의 값으로 갖게 되어 하나의 사례가 각 유형에 얼마나 소속되어 있는가를 점수로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은 각 유형에 대한 소속여부를 1과 0으로 구분하는 방식(crisp set)보다 유용하다. 분석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다항로지스틱 분석과 같이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각 유형의 소속여부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유형별로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분석 모형의 설명력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활용하면 모든 유형에 대하여 모든 사례가 해당 유형의 소속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모든 사례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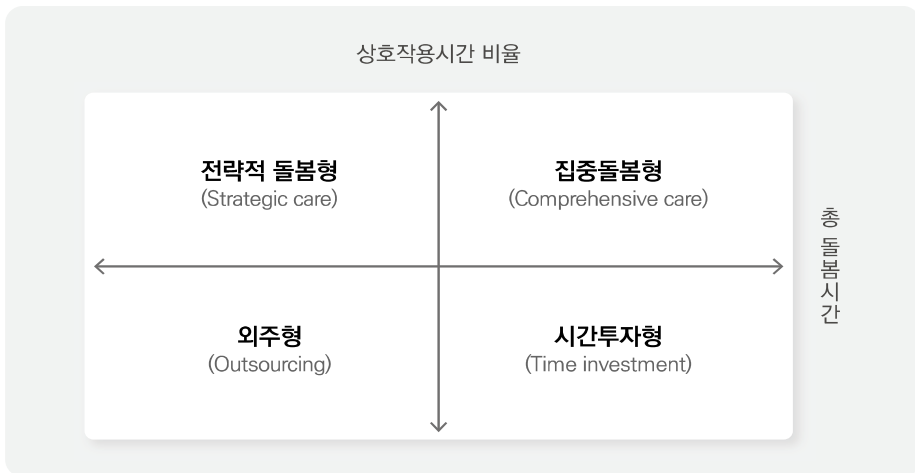
퍼지셋 이념형 분석은 측정가능한 지표의 구성과 퍼지셋을 활용한 조정(눈금매기기, Calibration)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행한다. 우선, 실증적 지표구성단계에서는 이론과 현실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돌봄시간유형의 지표로서 기본적인 돌봄시간과 상호작용시간비율을 선정하였다. 돌봄행동의 성격을 구분한 연구들도 돌봄시간을 대개 발달중심의 돌봄과 일상적인 돌봄으로 나누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방식은 동질적인 가구유형에만 적용가능하다. 상호작용시간이 아닌 비율을 선정하게 되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모두를 포함시

5) 퍼지셋 이념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방법은 군집분석처럼 분석을 실행한 이후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유형의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유형의 구분 기준이 선정되고 유형구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각 유형에 해당하는 수가 결정되어 이론적 근거에 의한 유형화가 순차적으로 가능하다(석재은, 2014).

킬 수 있는 돌봄유형을 만들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 외벌이가구보다 돌봄시간의 총량이 적으므로 가구유형에 따른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가구유형 이외의 부모가 지닌 특성에 따른 차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래 그림1과 같은 유형구분이 가능하다. 총돌봄시간도 많고 상호작용시간의 비율도 높은 경우에는 집중돌봄형(Comprehensive care)에 해당된다. 반대로 전체적인 돌봄시간의 양도 적고 상호작용시간의 비율도 낮을 경우에는 외주(Outsourcing)⁶⁾에 포함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돌봄시간의 양은 적지만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전략적인 돌봄(Strategic care), 반대로 총돌봄시간의 양은 많지만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시간투자형(Time Investment)에 속하게 된다.

그림 1. 영유아자녀 돌봄시간 유형



이렇게 선정된 지표를 퍼지점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유형에 완전히 속하는 지점(full-in)과 완전히 속하지 않는 지점(full-out), 그리고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즉, 교차되는 지점(cross-over)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돌봄시간이 부족한 지점(full-out)을 중위값의 50%로

6)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돌봄시간과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이 낮을 경우에 부모가 제공할 돌봄을 친인척, 개인, 시설 등에 맡길 것으로 간주하여 외주형으로 정하였다.

정하고, 반대로 돌봄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포함되는 지점(full-in)을 중위값의 200%의 값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부족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는 지점(cross-over)을 중위값으로 정하였다. 각 자녀 연령집단별 기준점은 <표 2>와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지점을 활용하여 원점수를 퍼지점수로 조정한 후에 각 유형에 대한 소속점수를 계산한다. 이때, 집합이론의 계산방식인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등을 활용하여 해당 유형에 대한 각 사례의 소속점수를 계산한다(김진옥, 최영준, 2012). 우선, 총 돌봄시간과 상호작용비율의 퍼지점수(포함되는 정도(A, B)를 각각 구하고 반대점수(포함되지 않는 정도(~A, ~B)를 구한다. 그리고 각 돌봄유형에 대한 소속점수를 구하기 위하여 교집합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서, 시간투자형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돌봄시간이 적지만 상호작용비율은 높아야 하므로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게 된다. 각 유형에 대한 소속점수를 <표 3>에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2.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위한 기준점

(단위: 분, %)

| | | 전체가구 | | 0~2세 자녀가구 | | 3~5세 자녀가구 | |
|------------|-------|-------|--------|-----------|--------|-----------|--------|
| | | 총시간 | 상호작용비율 | 총시간 | 상호작용비율 | 총시간 | 상호작용비율 |
| full-out | 중위값/2 | 110.0 | 17.6 | 135.0 | 17.3 | 80.0 | 18.4 |
| cross-over | 중위값 | 220.0 | 35.3 | 270.0 | 34.6 | 160.0 | 36.8 |
| full-in | 중위값*2 | 440.0 | 70.6 | 540.0 | 69.2 | 320.0 | 73.5 |

표 3. 조정된 퍼지점수와 돌봄시간유형별 소속점수의 예

| 사례 | 조정(Calibration) | | | | 자녀돌봄시간 유형화 | | | |
|----|-----------------|------|------|------|------------|-------|--------|------|
| | A | ~A | B | ~B | 집중돌봄형 | 시간투자형 | 전략적돌봄형 | 외주형 |
| 1 | 0.72 | 0.28 | 0.96 | 0.04 | 0.72 | 0.04 | 0.28 | 0.04 |
| 2 | 0.89 | 0.11 | 1 | 0 | 0.89 | 0 | 0.11 | 0 |
| 3 | 0.52 | 0.48 | 0.12 | 0.88 | 0.12 | 0.52 | 0.12 | 0.48 |
| 4 | 0.1 | 0.9 | 0.02 | 0.98 | 0.02 | 0.1 | 0.02 | 0.9 |
| 5 | 0.29 | 0.71 | 0.41 | 0.59 | 0.29 | 0.29 | 0.41 | 0.59 |
| 6 | 0.23 | 0.77 | 0.14 | 0.86 | 0.14 | 0.23 | 0.14 | 0.77 |
| 7 | 0.99 | 0.01 | 0.83 | 0.17 | 0.83 | 0.17 | 0.01 | 0.01 |

3. 주요변수

본 연구는 위에서 구분된 자녀돌봄 유형에 대한 계층적인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 소속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는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과 측정방식을 제시하였다. 계층적 요인으로서 대표적인 변수는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다. 가구소득은 4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⁷⁾.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의 기준이 초대졸이 아닌 이유는 분석대상 가구의 부모들의 학력이 고졸 이하가 매우 적고 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집중되어있어서 학력의 차이에 대한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4. 변수의 정의

| 변수구분 | | 유형 | 측정 |
|--------|----------|------|-----------------------------------|
| 종속변수 | 돌봄유형 | 연속변수 | 4가지 돌봄유형의 소속점수(0~1) |
| 계층적 변수 | 가구소득 | 더미변수 | 월평균소득 400만원 이상=1 400만원 미만=0 |
| | 부모의 교육수준 | 더미변수 | 4년제 대학 이상=1 2년제 대학 이하=0 |
| 통제변수 | 자녀연령 | 연속변수 | 연령 |
| | 가구유형 | 더미변수 | 맞벌이=1 외벌이=0 |
| | 지역 | 더미변수 | 읍면=1 동=0 |

통제변수에는 부모돌봄시간의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연령과 가구유형(맞벌이 여부)이 각각 연속변수와 더미변수로 투입되었으며⁸⁾, 그 외에도 어린이집이나

7) 더미변수로 포함한 이유는 원자료에서 소득이 구간으로 조사되어 엄격한 의미에서 연속변수라 볼 수 없었고, 고소득 부모의 양육 관련된 행위의 차이가 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총가구원수 항목이 추가되어 가구원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가 3인으로 제한된 가구만이 분석에 포함되므로 소득에 있어서 가구 균등화를 실행하지 않았다.

8) 생활시간조사는 휴가나 일시휴직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휴가나 일시휴직인

유치원과 같은 외부돌봄기관 이용여부를 고려하였으나 자녀의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아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외부돌봄기관의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변수를 투입하였다⁹⁾.

IV. 연구결과

1. 자녀돌봄유형별 특성

<표 5>는 각 돌봄유형별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표이다.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소속점수가 0.5 이상인 가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전략적 돌봄형과 외주형에서 35세 이상의 부모의 비율이 더 높았다. 부모의 학력은 대체로 총돌봄시간이 많은 집중돌봄형과 시간투자형에서 전략적 돌봄형과 외주형보다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부모가 더 많았다. 특히 고학력 어머니들이 시간투자형에 가장 높은 비율(28.1%)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돌봄시간과 어머니의 학력 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고학력 어머니들의 자녀돌봄시간이 길 것으로 보인다. 가구유형의 경우에 돌봄유형을 구분한 의도대로 전체적인 시간의 양이 많은 집중돌봄형과 시간투자형에 외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모든 돌봄유형에 두 가지 가구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의 차이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가지 돌봄유형 중에 집중돌봄형에는 외벌이 가구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는 가장 적었다(11.6%). 반면에 외주형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가 18.9%로 가장 적었으며, 맞벌이 가구는 41.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은 전략적 돌봄형과 외주형 가구들의 소득수준이 나머지 두 유형보다 높게

부모의 소득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맞벌이로 간주하기 애매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시간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여부 항목을 기준으로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맞벌이/외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속하는지 여부와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속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와 남자 혹은 여자만 취업한 외벌이 가구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9) 회귀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4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고 있다.

<표 6>에는 돌봄유형에 따른 자녀의 연령과 돌봄시간의 기술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집중돌봄형과 시간투자형이 1.4세와 0.7세로 전략적 돌봄형과 외주형의 2.7세와 2.6보다 보다 낮았다. 이러한 투자유형별 자녀연령의 차이는 돌봄시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투자형의 자녀연령이 가장 낮은 이유는 어린 자녀에게 더 긴 돌봄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돌봄유형별로 돌봄시간의 총량과 돌봄의 성격별 시간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중돌봄형과 시간투자형의 총 돌봄시간이 6시간 이상이지만 자녀의 연령이 높은 전략적 돌봄형과 외주형은 2시간 20분~30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 돌봄시간이 긴 두 유형 간에 상호작용시간 비율의 차이가 컸다. 자녀의 평균연령이 0.7세인 시간투자형은 총돌봄시간도 6시간 34분으로 가장 길고 이 중에 어린 자녀에게 주로 필요한 신체적인 돌봄시간이 5시간 16분(80.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은 19.7%에 그쳤다. 그러나 자녀의 평균연령이 1.4세인 집중돌봄형의 경우에는 총돌봄시간 6시간 1분 중에 상호작용시간이 3시간 14분으로 54%나 차지하고 있어서 연령에 따른 돌봄욕구 차이가 부모의 돌봄시간 구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돌봄유형별 가구특성

| 구분/유형 | 집중돌봄형 (Comprehensive care) | | 시간투자형 (TimeInvestment) | | 전략적 돌봄형 (Strategiccare) | | 외주형 (Outsourcing) | | 합계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부의 연령 | 35세 미만 | 80 | 28.2 | 85 | 29.9 | 54 | 19.0 | 65 | 22.9 | 284(100) |
| | 35세 이상 | 73 | 23.7 | 48 | 15.6 | 87 | 28.2 | 100 | 32.5 | 308(100) |
| 모의 연령 | 35세 미만 | 112 | 27.1 | 106 | 25.6 | 91 | 22.0 | 105 | 25.4 | 414(100) |
| | 35세 이상 | 41 | 23.0 | 27 | 15.2 | 50 | 28.1 | 60 | 33.7 | 178(100) |
| 부의 학력 | 고졸 이하 | 24 | 23.1 | 18 | 17.3 | 27 | 26.0 | 35 | 33.7 | 104(100) |
| | 전문대졸 | 39 | 24.7 | 25 | 15.8 | 50 | 31.6 | 44 | 27.8 | 158(100) |
| | 4년제 대학 이상 | 90 | 27.3 | 90 | 27.3 | 64 | 19.4 | 86 | 26.1 | 330(100) |
| 모의 학력 | 고졸 이하 | 29 | 22.8 | 19 | 15.0 | 39 | 30.7 | 40 | 31.5 | 127(100) |
| | 전문대졸 | 60 | 28.7 | 42 | 20.1 | 43 | 20.6 | 64 | 30.6 | 209(100) |

| 구분/유형 | 집중돌봄형 (Comprehensive care) | | 시간투자형 (TimeInvestment) | | 전략적 돌봄형 (Strategic care) | | 외주형 (Outsourcing) | | 합계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4년제 대학 이상 | 64 | 25.0 | 72 | 28.1 | 59 | 23.0 | 61 | 23.8 | 256(100) |
| 가구 외별이 유형 | 126 | 35.1 | 97 | 27.0 | 68 | 18.9 | 68 | 18.9 | 233(100) |
| 맞별이 | 27 | 11.6 | 36 | 15.5 | 73 | 31.3 | 97 | 41.6 | 359(100) |
| 가구 300만원 소득 미만 | 58 | 30.5 | 45 | 23.7 | 43 | 22.6 | 44 | 23.2 | 190(100) |
| 수준 300~500 | 66 | 25.6 | 57 | 22.1 | 58 | 22.5 | 77 | 29.8 | 258(100) |
| 500만원 이상 | 29 | 20.1 | 31 | 21.5 | 40 | 27.8 | 44 | 30.6 | 144(100) |
| 합계 | 153 | 25.8 | 133 | 22.5 | 141 | 23.8 | 165 | 27.9 | 592(100) |

표 6. 돌봄유형별 자녀의 연령 및 돌봄시간

(단위: 만나이, 분/시간:분, %)

| 구분/유형 | 집중돌봄형 (Comprehensive care) | | 시간투자형 (TimeInvestment) | | 전략적 돌봄형 (Strategic care) | | 외주형 (Outsourcing) | | 전체 |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자녀연령 | 1.4 | 1.4 | 0.7 | 1.2 | 2.7 | 1.7 | 2.6 | 1.8 | 1.9 | 1.8 |
| 돌봄 시간 | 총돌봄시간 | | 신체적 돌봄 | | 상호작용 시간 | | 상호작용 비율 | | | |
| | 6:01 | 1:48 | 6:34 | 2:21 | 2:30 | 0:47 | 2:20 | 0:55 | 4:16 | 2:29 |
| | 2:46 | 1:14 | 5:16 | 2:09 | 1:07 | 0:33 | 1:54 | 0:43 | 2:41 | 1:58 |
| | 3:14 | 1:07 | 1:17 | 0:54 | 1:23 | 0:33 | 0:25 | 0:23 | 1:34 | 1:19 |
| | 54.0 | - | 19.7 | - | 55.3 | - | 18.3 | - | 36.9 | - |

앞의 두 유형에 비해서 총돌봄시간이 짧고, 맞별이 가구의 비율이 높고, 자녀연령이 2.6, 2.7세로 높은 전략적 투자형과 외주형 간에도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략적 돌봄형은 전체 돌봄시간 2시간 30분 중에 1시간 23분인 55.3%의 상호작용적 돌봄을 자녀에게 제공하지만, 외주형은 상호작용시간이 25분으로 18.3%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의 연령 보다는 부모의 계층적인 특성이나 가구의 유형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유형의 경우에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아버지의 비율에 차이가 컸다. 전략적 돌봄유형에 속한 고학력 아버지의 비율이

19.4%인 반면에 외주형에 속한 고학력아버지는 26.1%이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41.6%로 가장 높은 외주형은 가구소득 수준도 높은 편이라 부모가 상호작용적 돌봄을 제공하는 대신 외부돌봄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자녀돌봄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가. 전체 영유아가구에 대한 돌봄유형 영향요인 분석

기술분석에서 나타난 돌봄유형에 따른 부모 및 가구의 특성의 차이에 대한 추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돌봄유형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7>은 전체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돌봄유형별 계층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표로서 각 돌봄유형별로 소속집수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Adjusted R²)이 9%~20%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전체 영유아자녀 가구 돌봄유형별 회귀분석

| 전체 | 집중돌봄형 | | 시간투자형 | | 전략적 돌봄형 | | 외주형 | |
|---------------------|-------------|--------|-------------|--------|-------------|--------|-------------|--------|
| | B | t | B | t | B | t | B | t |
| 고소득 (400만원 이상) | .019 | .749 | -.024 | -.985 | .022 | .845 | -.023 | -.843 |
| 아버지학력 (4년제 이상) | .013 | .535 | .019 | .841 | -.071** | -2.849 | .004 | .170 |
| 어머니학력 (4년제 이상) | -.023 | -.939 | .042+ | 1.805 | .030 | 1.211 | -.044+ | -1.688 |
| 자녀연령 | -.021** | -3.245 | -.064*** | -10.33 | .045*** | 6.802 | .047*** | 6.793 |
| 맞벌이여부 (맞벌이=1) | -.191*** | -7.793 | -.089*** | -3.793 | .023 | .914 | .186*** | 7.080 |
| 지역 (읍면=1) | -.034 | -1.064 | .007 | .232 | -.015 | -.441 | .037 | 1.077 |
| (상수) | .402*** | 17.086 | .435*** | 19.413 | .203*** | 8.361 | .191*** | 7.591 |
| Adj. R ² | 0.130 | | 0.208 | | 0.091 | | 0.178 | |
| F | 15.728(***) | | 26.939(***) | | 10.860(***) | | 22.268(***) | |

+ p<.1, * p<.05, ** p<.01, *** p<.000

분석결과 모든 돌봄유형에 걸쳐서 부모의 계층적인 특성 보다는 자녀의 연령과 가구 유형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술분석에서 나타났던 자녀연령의 차이가 돌봄유형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돌봄시간이 많은 집중돌봄형과 시간투자형은 자녀의 연령이 낮았고, 전략적 돌봄형과 외주형은 자녀의 연령이 높을 때로 명확하게 나뉘었다. 맞벌이 여부의 경우에는 전략적 돌봄형 외의 모든 돌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연령이 낮고 외벌이 부모일 경우에 집중돌봄형이나 시간투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자녀의 연령이 높고, 맞벌이 부모일 경우에는 외주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략적 돌봄형은 자녀의 연령은 높지만, 아버지가 저학력 일 경우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가구 분석결과 자녀의 연령이 총돌봄시간의 양이 많은 돌봄유형과 적은 돌봄유형으로 구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돌봄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을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가구를 0~2세 자녀가구와 3~5세 자녀가구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나. 자녀 연령집단별 돌봄유형 영향요인 분석

다음의 <표 8>은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자녀돌봄유형별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 돌봄유형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이 10%~23%정도로 전체가구에 대한 분석모형에 비해서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분석에서와 달리 계층적 요인인 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소득수준의 영향력은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이 높은 집중돌봄형과 전략적 돌봄형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돌봄시간이 부족한 외주형이 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소득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돌봄에 대한 가용시간 내에서 상호작용적인 돌봄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겪는 빈곤이나 경제적인 압박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모의 교육적 열망이 실천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된 특성을 지닌 집중돌봄형과 외주형에서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인 맞벌이 변수 외에 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즉, 부모의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영아시기에 있어서 고소득 외벌이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보다 충분한 돌봄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서 저소득 맞벌이 부모들은 직접 자녀를 돌보기 보다는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주로 총돌봄시간이나 기본적인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은 시간투자형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전략적 돌봄형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전체적인 돌봄시간이 긴 시간투자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만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어머니뿐만 아니라 고학력 아버지들도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등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저학력 아버지들은 0~2세 자녀에게 주로 필요한 신체적인 돌봄보다는 놀아주기와 같은 불규칙적인 상호작용적 돌봄에 더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학력 부모의 경우에 어린 자녀에게 기본적인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계층적인 특성이 각 유형에서 항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돌봄시간과 상호작용비율이 모두 크거나 작은 집중돌봄형과 외주형에서는 소득과 아버지의 학력의 영향력이 일관적이다. 하지만 시간투자형과 전략적 돌봄형의 경우에는 소득과 아버지의 학력에 대한 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인 돌봄시간과 상호작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은 주로 상호작용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학력은 주로 기본적인 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0~2세 자녀 돌봄유형별 회귀분석

| 전체 | 집중돌봄형 | | 시간투자형 | | 전략적 돌봄형 | | 외주형 | |
|-------------------|----------|--------|----------|--------|---------|--------|---------|--------|
| | B | t | B | t | B | t | B | t |
| 고소득 (400만원 이상) | .058+ | 1.860 | -.007 | -.220 | .060+ | 1.827 | -.074* | -2.183 |
| 아버지학력 (4년제 이상) | .026 | .885 | .054+ | 1.940 | -.061* | -2.000 | -.027 | -.861 |
| 어머니학력 (4년제 이상) | -.045 | -1.493 | .059* | 2.049 | -.017 | -.534 | -.011 | -.351 |
| 자녀연령 | -.030+ | -1.739 | -.148*** | -8.943 | .142*** | 7.735 | .065** | 3.472 |
| 맞벌이여부 (맞벌이=1) | -.195*** | -6.325 | -.132*** | -4.471 | .004 | .129 | .212*** | 6.341 |

| 전체 | 집중돌봄형 | | 시간투자형 | | 전략적 돌봄형 | | 외주형 | |
|---------------------|-------------|--------|--------------|--------|--------------|-------|--------------|-------|
| | B | t | B | t | B | t | B | t |
| 지역 (읍면=1) | -.034 | -.821 | .000 | -.006 | .012 | .283 | .045 | 1.006 |
| (상수) | .346*** | 12.343 | .414*** | 15.515 | .198*** | 6.709 | .253*** | 8.328 |
| Adj. R ² | 0.104 | | 0.236 | | 0.141 | | 0.122 | |
| F | 8.614 (***) | | 21.295 (***) | | 11.846 (***) | | 10.161 (***) | |

+ p<.1, * p<.05, ** p<.01, *** p<.000

표 9. 3~5세 자녀 돌봄유형별 회귀분석

| 전체 | 집중돌봄형 | | 시간투자형 | | 전략적 돌봄형 | | 외주형 | |
|---------------------|------------|--------|---------|--------|---------|--------|------------|--------|
| | B | t | B | t | B | t | B | t |
| 고소득 (400만원 이상) | .000 | -.003 | -.021 | -.546 | -.009 | -.217 | .040 | .842 |
| 아버지학력 (4년제 이상) | -.006 | -.145 | -.057 | -1.474 | -.047 | -1.123 | .091+ | 1.873 |
| 어머니학력 (4년제 이상) | .050 | 1.156 | -.006 | -.150 | .051 | 1.279 | -.071 | -1.521 |
| 자녀연령 | -.064** | -3.024 | -.011 | -.615 | .041* | 2.059 | .036 | 1.583 |
| 맞벌이여부 (맞벌이=1) | -.198*** | -4.730 | -.069+ | -1.898 | .061 | 1.579 | .179*** | 3.939 |
| 지역 (읍면=1) | -.004 | -.074 | -.034 | -.712 | -.040 | -.792 | .075 | 1.252 |
| (상수) | .662*** | 7.067 | .390*** | 4.774 | .076 | .871 | .101 | .997 |
| Adj. R ² | 0.172 | | 0.013 | | 0.027 | | 0.119 | |
| F | 7.766(***) | | 1.413 | | 1.895 | | 5.384(***) | |

+ p<.1, * p<.05, ** p<.01, *** p<.000

다음은 3~5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각 돌봄유형별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의 0~2세 자녀가구에 대한 분석결과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각 돌봄유형분석 모델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1.3%~17.2%로 이전 분석에 비해서 낮았으며, 시간투자형과 전략적 돌봄형 모델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집단의 분석결과와 달리 계층적

변수나 자녀연령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지 가구유형인 맞벌이 여부의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3~5세 자녀의 경우에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학력에 막론하고 비슷한 패턴의 자녀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만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3~5세 자녀를 위한 국가의 돌봄지원이 누리과정이나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계층적인 특성이 희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버지가 고학력일 경우에 외주형 돌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고학력 아버지들이 자녀의 성장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외에 전문적인 돌봄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행동을 그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고 유형화를 하여서 부모가 지닌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자녀의 돌봄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적 요인의 영향력이 영유아자녀의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돌봄시간유형에 대한 계층적 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0. 자녀돌봄시간유형별 계층적 요인의 영향력

| | 전체가구 | 0~2세 자녀가구 | 3~5세 자녀가구 |
|---------|-----------|----------------------------------|-----------|
| 고소득 | | 집중돌봄형(+) 전략적 돌봄형(+) 외주형(-) | |
| 고학력 아버지 | 전략적 돌봄(-) | 시간투자형(+) 전략적 돌봄형(-) | 외주형(+) |
| 고학력 어머니 | | 시간투자형(+) | |

첫째, 영유아자녀의 연령집단에 따라서 각 돌봄시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계층적인 변수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컸다. 0~2세 자녀가구의 경우에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층적인 변수들이 돌봄유형별로 영향력을 드러냈다. 그러나 3~5세 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맞벌이 여부)외에 돌봄유형을 특징지을 만한 변수가 없었다. 즉, 두 자녀연령집단의 부모들이 다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0~2세 자녀가구집단에서는 높은 소득이 부모에게 자녀돌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돌봄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낮은 소득은 부모에게 자녀돌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소득과 자녀돌봄시간과의 관계를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의 영향력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Nock & Kingston, 1988; Stafford & Yeung, 2004; Hofferth, 2001; 송유진, 2011; 주은선 등, 2014; 노혜진, 2014). 이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돌봄시간의 합이나 돌봄의 성격 별로 구분하여 분석했던 것과 달리 돌봄시간을 유형화하여 전체적인 돌봄시간과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0~2세 자녀가구에서 부모가 지닌 학력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고학력 어머니는 물론이고 고학력 아버지들이 직접 기본적인 돌봄을 행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력 아버지들은 기본적인 돌봄시간이 적은 전략적 돌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린 자녀돌봄패턴에 대한 아버지의 학력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돌봄유형내에서 가구유형을 통제한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맞벌이 가구 내에서 어머니의 경제활동과 학력에 초점을 두거나 아버지의 학력이 개별적인 돌봄시간 혹은 돌봄시간의 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박은정, 2013; 김진옥, 고은주, 2014; 주은선 등, 2014; 노혜진, 2014) 본 연구에서 돌봄의 유형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학력의 영향력을 재검증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넷째, 3~5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는 고학력 아버지의 존재가 외주형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고학력 아버지들이 저학력 아버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보다는 학원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외부돌봄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 및 교육계층에 따라서 자녀돌봄의 패턴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론적 함의이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활용하여 자녀돌봄시간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적인 돌봄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두 가지 돌봄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실행되었던 단조로운 분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종합적으로 자녀돌봄현상을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영유아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이론적 측면이다. 지금까지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영유아자녀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주로 어머니의 학력을 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닌 연령별 돌봄욕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영유아자녀의 연령집단별 특성과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계층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였고, 기존의 이론들이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다. 0~2세 자녀돌봄유형에 대한 계층적 요인의 유의미성은 이들에 대한 자녀돌봄을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3~5세 자녀가구에 대한 계층적인 변수들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 이루어진 3~5세 자녀에 대한 돌봄 정책들이 부모가 지닌 소득 및 학력에 따른 돌봄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는 0~2세 자녀가구에 대한 돌봄지원을 고민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5세 아동과 달리 0~2세 아동은 주양육자와의 애착형성과 같은 안정적인 관계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자녀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 및 바우처 서비스가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직접돌봄에 대한 욕구를 충족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인 육아휴직 및 시간제 근무의 대상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모가 공동으로 번갈아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인 확대가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시도에 설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서비스를 각 가정에서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센터의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영아 자녀에 대한 부모돌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자녀돌봄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은주는 서강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시간강사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정책, 자녀돌봄, 생활시간연구 등이다.

(E-mail: gonju519@hanmail.net)

김진옥은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복지국가,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 생활 시간연구 등이다.

(E-mail: sspjwk@sogang.ac.kr)

참고문헌

- 강한나, 박혜원. (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6), pp.613-622.
- 김진옥, 고은주.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pp.185-212.
- 김진옥, 최영준. (2012).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4(2), pp.31-54.
- 노혜진. (2014).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pp.213-238.
- 박은정, 이성림. (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 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pp.97-111.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석재은. (2014).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건사회연구*, 34(4), pp.5-35.
- 송유진. (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한국인구학*, 34(2), pp.45-64.
- 이옥, 현온강, 최보가, 이귀옥, 이숙, 조성연. (2002). 한국아동의 발달 현황과 세대간 부모 양육행동 비교. *아동과권리*, 6(2), pp.385-414.
-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pp.367-400.
-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pp.117-133.
- Bianchi, S., Cohen, P., Raley, S., & Nomaguchi, K. (2004). *Inequality in Parental Investments in Child-rearing: Expenditures, time, and health*. Social Inequality. Russell Sage Foundation. pp.189-219.
- Bianchi, Suzanne M., John, P. Robinson, & Melissa A. Milke. (2006). *The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 Bodrova, E. & Deborah, J. Leong. (2010). **정신의 도구: 비고츠키 유아교육** (박은혜, 신은수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서출판 1996).
- B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32, pp.513-531.
- Bonke, Jens, & Esping-Andersen, Gøsta. (2011). Family investments in children-productivities, preferences, and parental child car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1), pp.43-55.
- Bonke, Jens, & Esping-Andersen, Gøsta. (2009). Parental investments in children: How educational homogamy and bargaining affect time alloc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0(20), pp.1-13.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pp.S95-S120.
- Connelly, Rachel & Jean, Kimmel. (2007). *The role of non-standard work hours in maternal caregiving for young children*. IZA Discussion Paper No.3093.
- Craig, Lyn, & Mullan, Killian. (2011). How Mothers and Fathers Share Childcare A Cross-National Time-Use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pp.834-861.
- Craig, Lyn.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pp.259-281.
- Demo, David H. & Cox, Martha J. (2000).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pp.876-895.
- Esping-Andersen, G. (2014). **끝나지 않은 혁명** (주은선, 김영미 공역). 서울: 나눔의 집. (원서출판 2009).
- Fuligni, A. S. & Brooks-Gunn, J. (2004). Measuring mother and father shared caregiving: An analysis using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father involve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ahwah, New Hersey London.
- Guryan, Jonathan, Hurst, Erik, & Kearney, Melissa Schettini. (2008). *Parental*

-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No. w1399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artas, Dimitra. (2014). *Parenting, Family policy and Children's Well-Being in an Unequal Society-A New Culture War for parent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Hofferth, Sandra. (2001). Women's employment and car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Women's employment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151-174.
- Kalil, Ariel, Rebecca Ryan., & Michael Corey. (2012). Diverging destinies: Maternal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al gradient in time with children. *Demography*, 49(4), pp.1361-1383.
- Laakso, M. L., Poikkeus, A. M., Katajamäki, J., & Lyytinen, P. (1999). Early intentional communication as a predictor of language development in young toddlers. *First Language*, 19(56), pp.207-231.
- McGee, J., Menousek, P., & Menolascino, F. J. (1998). *온화한 교수* (박승희 역). *교육과 학사*. (원서출판 1988).
- McLanahan, Sara.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4), pp.607-627.
- Nock, Steven L. & Paul William Kingston. (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1), pp.59-85.
-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yer, Liana C., Bianchi, Suzanne M., & Robinson, John P. (2004a).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pp.1-43.
- Sayer, Liana C., Gauthier, Anne H., & Furstenberg, Frank F. (2004b).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with children: Cross national vari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pp.1152-1169.
- Stafford, Frank., & Yeung, W. Jean. (2004). The distribution of children's developmental resources.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271, pp.289-313.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Caring Types for Preschool Children: Adopt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Ko, Eun Ju

(Sogang University)

Kim, Jin Wook

(Sogang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s of factors of parents' social class, such as income and education level on the types of child care, using 2014 Korea Time Use Survey (KTUS) Data. We divide parents' child care into intersecting basic care and interactive care. By intersecting these two variables and utiliz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ur types of child care—Comprehensive Care (CC), Time Investment (TI), Strategic Care (SC) and Outsourcing (O)—have been classified and their membership scores have been measured. Statistical models a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according to the age of preschool children, i.e., 0-2 years and 3-5 yea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social class variables are different between these two sub-group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0-2 income affects IC, SC and O/N whereas education influences TI membership score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3-5, on the other hand, fathers' education is relevant variable for O/N sc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class factors matter in the patterns of parents' child car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discuss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Keywords: Child Care Time, Child Care Type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ime Use Survey